

'망부운' '나의 살던 고향'...시립단체 연말공연 풍성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50년 만에 부활
시립오페라단, 7~8일 음악회 형식 공연
손튼 와일더 희곡 광주 정서로 각색
광주시립극단, 6~8일 문예회관 소극장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등 150명이 출연한다.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연말을 앞두고 한 해 결실을 거두는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이번 주에는 창단 1주년을 맞은 시립오페라단이 음악가 정율성의 오페라를 복원해 첫 브랜드 공연을 선보인다. 시립극단은 미국 손튼 와일더의 희곡에 광주의 특색을 입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복원
광주 출신 정율성(1914~1976)의 중국어 오페라 '망부운'이 50여 년 만에 광주에서 부활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균)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정율성의 오페라 콘서트란테 '망부운'을 공연한다.

'망부운'은 항일운동가이자 중국 3대 혁명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의 오페라 작품으로 지난 1962년 중국 베이징에서 초연됐다. 첫날 한국어, 다음날 중국어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의상·분장 없이 연주하는 '콘서트란테' 형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립오페라단은 첫 번째 브랜드 작품으로 '망부운'을 선정하고 총 5억여 원을 들여 제작 작업을 진행했다. 3년 전 정율성의 외동딸 정소제(75)씨로부터 악보 원본을 넘겨 받아 복원 작업에 들어간 뒤 지난해 8월 1차 시연회를 열었다. 각색에는 정소제씨와 정갑균 감독,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참여하고 '망부운'에 관한 논문을 쓴 양희석 전남대 중문과 교수와 이희라씨가 번역을 맡았다. 이날 무대에서 지휘봉을 잡는 박지운 김해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악보 복원과 편곡도 맡았다.

'망부운'은 중국 운남성 대리의 '백족(白族) 공주가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구름이 된다는 비극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2막 중 4중창 '왕궁으로부터 도주', 3막 공주의 아리아 '아 아름다운 풍경이여', 4막 중 3중창 '구름이 된 공주'가 있다.

실제 부부이기도 한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고규남이 주연을 맡고 소프라노 신은선·이유림, 메조소프라노 신은정·김진희, 테너 김정규 등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8일 중국어 공연에서는 후배이 10대 성악가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앤 동구이와 테너 마 귀이 등 중국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이번 무대는 광주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정기 공연을 선보인다.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왼쪽) 1962년 초연 모습과 시립극단 연극 '나의 살던 고향'의 출연진들.

◇따뜻한 가족극 '나의 살던 고향'
미국 손튼 와일더의 희곡을 광주의 정서와 함께 새롭게 만난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은 열두 번째 정기공연으로 연극 '나의 살던 고향'을 오는 6~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3시·7시 30분 4차례에 걸쳐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미국 극작가 손튼 와일더의 1938년 플리처상 수상작 '우리 읍내'가 원작으로 시립극단이 각색해 지난 2014년 선보였다. 각색된 작품은 1970년대 한적한 시골 읍내 송정리를 배경으로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다뤘다.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은 원작이 갖는 주제 의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영상미를 강화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맛깔나게 보았다. 또 5인조 밴드 라이브 공연을 넣어 즐길 거리를 더했다.

모두 3막으로 구성된 작품은 '무대감독'이 극을 이끌며 관객과 대화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1막은 송정리의 이웃집간인 의사 김부식과 지역신문편집장 이영배의 두 가족을 중심으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이어 2막에서는 이웃이었던 김지오와 이미례의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한 이미례가 열세 살 생일 때로 되돌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의미를 3막에 담아냈다.

이번 작품은 KBS 드라마 제작 PD 출신으로 경주시립극단 예술감독, 광주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등을 지낸 엄기백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 송정우, 노희설, 이명덕, 이영환, 최효주, 윤여송 등 22명이 출연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62-511-275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락 콘서트야 뮤지컬이야?

뮤지컬 '프리즌' 7~8일 5·18기념문화센터

락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폭발적인 뮤지컬 무대를 광주에서 만난다.

극단 코스모스가 코믹뮤지컬 '프리즌'〈사진〉을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공연한다. 뮤지컬로 화제를 모은 '프리즌'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노래들이 더해져 '락 뮤지컬'로 변신했다.

이날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는 무대는 가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가수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연습한 청년들은 사기를

당해 좌절한다. 빛을 갖기 위해 은행을 털지만 어슬픈 행동으로 결국 경찰에 붙잡힌다. 교도소에 들어간 청년들은 함께 수감된 '방장'을 웃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춤과 노래 훈련을 한다. 흥진 돈을 찾기 위해 가까스로 탈옥에 성공하지만 돈을 숨겨놓은 곳에 는 이미 클럽이 들어선 뒤. 청년들은 밴드를 자처해 클럽에 취직하지만 숨겨놓은 돈은 보이지 않고 밴드는 유명세를 얻기 시작한다. R석 5만원, S석 3만원(예매 탸 R석 3만원, S석 1만8000원). 문의 1688-382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시는 음식의 독특한 맛과 같아야 한다"

광주문인협회장 역임 강만 시인 '쌈빱' 펴내

"시를 읽는 독자가 사라졌다. 시를 읽으며 꿈을 꾸던 그 아름다운 독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겨울철새처럼 독자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시를 쓴다는 것은 참 쓸쓸한 일이다. 시는 시인들만 읽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시인들도 시를 읽지 않는다. 독자 없는 시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제 시를 외면하고 날아 가버린 독자들을 다시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시가 변해야 한다."

광주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강만 시인이 신작 시집 '쌈빱(시와사람)'을 펴냈다.

모두 90편이 실린 작품집에는 일상의 친근한 소재들이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시집 제목 '쌈빱'이 말해주듯 "시는 음식의 독특한 맛과 같아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이 투영돼 있다. 흥미를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까, 라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3년여에 걸쳐 쓴 작품은 '춘철살인', '월식', '뚝감', '철면피', '바다와 멸치' 등 짧지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시들이 대

부분이다. 시 본래의 맛과 특징을 살리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긴 작품들이다.

"수많은 장수들의 칼로도 빼앗지 못했던/ 알렉산더

왕의 목숨을/ 모기는 작은 침 한 방으로 가볍게 빼앗아/ 하늘로 들려보았다// 오호라/ 춘철살인을 꿈꾸는 내 시의 스승은/ 바로 너였구나."('춘철살인' 전문)

'춘철살인'은 작금의 시 세계를 집약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쟁의 천재인 알렉산더를 죽인 것은 적군의 칼이 아니라 친근한 소재들이 정갈한 언어로 형상화돼 있다. 시집 제목 '쌈빱'이 말해주듯 "시는 음식의 독특한 맛과 같아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이 투영돼 있다. 흥미를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을까, 라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다.

한편 강 시인은 '시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학상, 박용철문학상을 수상했다. 광주예총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시집 '푸른 단감', '허허(허)'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록도병원 한센인 강선봉 시집 '곡산의 솔바람 소리' 일본어 출간

곡산(谷山)은 산골짜기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나군에 감역되면 가족과 일가친지로부터 쫓겨나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모여 살았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서로를 곡산이라 불렀다 한다.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 중인 한센인 강선봉 씨의 시집 '곡산의 솔바람 소리'가 최근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번역된 시집은 '소록도의 송뢰'(ソロクトのしょうらい)

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1939년 경남 진주에서 한센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강 씨는 8세 때인 1946년 어머니와 함께 소록도 땅을 밟았다. 작품집에는 강 씨가 1962년 섬을 탈출하기 전까지 어머니와 격리돼 거주했던 경험, 소록도 내 한센인 자녀들이 다녔던 소학교 일상 등 기구한 삶이 담겨 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번역을 맡은 가와구치 사치코 씨가

일번에 출판을 위해 작품을 정독했으며 소록도를 직접 방문한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에필로그에서 "나는 어머니의 울부짖음 속에서 끌려가며 들었던 솔밭 길 소나무를 스쳐지나가던 에달폰 바람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라고 말한다.

강 씨는 수필집 '소록도 천국으로의 여행'(2006년), 소설 '곡산의 이농초 사랑'(2016년) 등의 작품을 펴냈으며 100주년을 기념해 한센인들로 구성된 '해록예술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루 팡 닭 강 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운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빨간펜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실험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합,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